

지역 소식통

김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개최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8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층 강의실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여성친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 관내 우수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인력을 채용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인 기업협약(대표 흥종식), 김제 중앙병원(대표 이희근), 한우물령농조합법인(대표 최정운), 김제병원(대표 최경훈), 푸드월드(대표 이재수), 전주대산학 협력단(단장 김진수), 제일제자복지센터(센터장 유호열), 효드림요양병원(대표 박호진), 엘립스아일리집(원장 채영미), 신정건설(대표 신정식) 등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설명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마치고 뜻 깊은 모임의 장이 되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발굴을 위해 김제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취업설계사의 동행면접을 통한 전담기업 관리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부안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리도움) 교육이 16일 군청 종합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지방보조금 지원면제 및 회계처리 기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성과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매뉴얼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이날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감시체계와 경리팀의 학동교류를 통해 보조금 집행 실무에 필요한 감사·지적사항과 지출계약서 유의사항을 교육했으며 부안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보조사업이 치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개통됐으며 보조금 사업의 전 처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유사증복 사업 및 지출 증빙에 대한 검증 기능이 강화돼 예산낭비 방지와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 대 군민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산불재난 대비 총력

종합대책 수립…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위한 전 공무원 비상근무

부안군이 불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불철 산불예방기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로 들어갔다.

특히 군은 지난 15일에는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갖고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 자원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군은 또 산불발생 초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50명, 진화대원 30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 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재근 푸른도시과장은 "부안군은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절실히다"며 "산불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추진

1억3천만원 사업비 확보… 1816두 선발·관리비·송아지 장려금 지원

김제시는 호주 캐나다의 FTA 발효 등으로 축산분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 한우를 수입육과 차별화하기 위해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정시책 중 하나인 침략농정 주요사업으로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한 암소기량·효율성·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며 고능력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

지에 대하여 '전북카우'라는 브랜드를 표기하여 출하해 전북한우의 우수성 홍보에 대해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작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는 송아지 장려금 부분이 추가되어 선발된 고능력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전북카우 브랜드 표기와 동시에 두당장려금 5만원이 지급되어 우수성 홍보 및 농가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등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총 1816두의 고능력 암소 선발 및 관리비, 송아지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고능력 암소를 선발해 고품질 송아지 생산으로 전북 한우의 차별화와 개량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쌍화차거리 건물주, 세입자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 체결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회장 이승훈, 이하 건물주 협의회), 세입자협의회(회장 이공식)가 상가 활성화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건물주협의회, 세입자협의회는 16일 쌍화차거리 세입자 간 대화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모색한 끝에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상가 안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회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 간 대화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모색한 끝에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협약서는 ▲쌍화차거리 내 쌍화차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마사회, 사랑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16일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김제 마사회(회장 조상배)에서 "지역발전의 조석이 될 지역인재 육성에 써 달라"며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설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여건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 기업인 출향인등의 기탁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김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66년생(달띠) 모임으로 2010년도에 결성되어 현재 6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불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외계층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새

만기 2호 방조제 환경정화활동 추진 등 지역의 지원봉사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장학기금도 기탁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조상배 회장은 "내 자녀 같은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인재육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승복 김제시 행정지원국장은 "기탁금은 오늘보다 눈부신 내일의 김제를 만들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강소농 지원 대상 농업 경영체 대상자 모집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정읍시가 올해 강소농 지원 대상 농업 경영체 선정을 위해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강소농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지면적이 적으면서 가족 중심적인 중소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비탕으로 지속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농업인을 말한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농업 경영체의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참여식 실천교육과 개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 들어줄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화습도입체 조직과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기술센터는 올해도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품목기술·기공·유통·마케팅 등의 특성교육, 농기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자율 모임체 조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 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업 경영체로, 경영 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과 경영상태 진단, 경영 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농업인이 된다.

신청 절차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농업인 상담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jeongeup.gokr>)를 참조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 노인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개인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륜 등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노후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노인권익증진 활동이다.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는 금연 및 치매예방, 떡띠방 및 보이스피싱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하며 월 4회 1일 3시간이내로 10시간 참여하면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실비를 지급된다.

희망자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063-584-3728)에 방문해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선발 절차를 거쳐 사업 참여자로 확정된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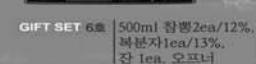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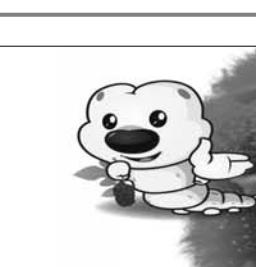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면초를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넓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으묘한 맛에 뒤黠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송을 맞으며 영글어서 타 지역보다 당도와 젤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대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5ea | 375ml 5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